

“정신없이 뛰쳐나와”...붕괴 현장 ‘아수라장’

르포 '외벽붕괴' 신축 공사현장 가보니

인근 입주민 109세대 대피 소동...숙박업소 행렬 실종자 가족들 망연자실...“제발 살아만 있기를”

“근무중에 아파트 외벽이 붕괴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또 무너질 위험이 있다기에 서둘러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금호하이빌 앞, 칼바람이 온 몸을 꽂꽂이 입주민들이 양손에 집을 가득 들고 서둘러 건물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화정동 화정현대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관할 구청인 서구가 인근 입주민 109세대에게 대피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회사 등 각지에서 일상을 보내던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내려진 대피령에 황급히 귀가하고 서둘러 집을 나오는 등 자연재해를 방비해 하는 대피 행렬이 이어졌다. 곳곳에서 경찰의 통제가 있어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지만 대피하는 시민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한 부모는 어린 자녀들이 상황을 모르고 발걸음을 주저하자 붕괴 상황을 설명하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주변의 숙박업소는 대피객들로 인해 붐볐고, 석식 시간과 겹쳐 주변 식당들도 포장 손님으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입주자들이 빠져나간 건물은 적막감이 뿜뿜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급하게 간단한 짐만 챙겨 대피하느라 택배·신선식품 등이 집 앞에 그대로 놓여 있기도 했다. 거동이 불편한 한 노인은 숙박비가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 일도 발생했다.

서구가 주민 대피소를 마련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숙박업소 등에 머물 것을 요구하고, 숙박요금은 자비로 결제 후 구청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독거노인 이 모씨(67)는 “숙박업소로 가기만 하면 하룻밤 묵을 수 있을 줄

알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갔지만 돈이 없어서 쫓겨났다”며 “위험하지만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도 생각이 나질 않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시민 박 모씨(34)는 “업무상 이유로 타 지역에 있다가 대피 소식을 듣고 혈레벌떡 돌아왔다”면서 “내일 또다시 시외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일이 생기거나 가족들이 다칠까봐 정말 걱정된다”고 노심초사했다.

12일 오전 11시께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 인근 소방본부 전마에서도 사고 이후 이곳에 모인 실종자 가족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생사를 알 수도 없는 가족 생각에 이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밤새 흘린 눈물에 눈이 충혈된 이들도 있었다.

오전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밤새 수색작업이 펼쳐지지 않아 크게 쌓인 걱정을 털어낼 순 없었다.

정부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임시 거처로 숙박업소를 마련해줬으나 이들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수색 결과에 야외에서 머물렀다. 몇몇의 가족들은 사고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 인근에서 한 주민이 집을 들고 대피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현장 바리게이트 앞에 앉아 애절한 눈빛으로 잔해물이 떨어진 현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50대 작업자를 기다리는 딸은 “아버지가 작업을 독촉하는 전화와 받고 쫓기는 듯 주말에도 출근하고 정말 바빠 보여 자주 뵙지 못했다”며 “너무 보고 싶고 제발 살아만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업자의 조카는 “몸이 안 좋아 회복 중에 있었는데 이모부의 소식에 단숨에 달려왔다. 일도 열심히 하시고 자상한 분

이셨는데 이런일을 당해 정말 애들하다”면서 “연락을 계속해봤지만 지금까지도 통화가 안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수색 당국은 이날 오전 현장에 긴급 안전진단한 점검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11시 20분 구조전 6마리와 핸들러를 투입해 수색을 재개했다.

수색 당국은 이와 별도로 외부 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요청해 낙하 방지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홍승현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관주	순천	광양
-4~1	-4~2	-3~2	-3~2
나주	목포	여수	
-5~2	-2~1	-2~3	

일출 07:41 일몰 17:41
월출 13:57 월몰 03:33

장성	-5~1	흑산도	2~3
담양	-6~1	구례	-7~1
화순	-6~0	곡성	-7~0
영광	-4~0	완도	-1~3
함평	-4~1	강진	-4~2
무안	-4~0	장흥	-6~1
영암	-5~1	해남	-5~1
진도	-1~3	고흥	-5~3
신안	-3~2	보성	-7~1

목포	만주 11:10 22:57 간조 03:50 16:55	여수	만주 06:25 18:23 간조 12:37 ---
----	----------------------------------	----	--------------------------------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없이 131

곳곳서 부실 시공 정황 드러나

준공기간 맞추기 위해 겨울철 무리한 공사 강행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사고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어두운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예견된 인재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기술사회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공동주택 시공 시 설치하는 ‘갯뽕’이 무너지면서 외벽 등이 붕괴한 것이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

현장 목격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붕괴 사고가 부실시공과 취약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 예정인 준공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골조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조물 안전성이 불량해진 영향으로 붕괴가 발생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의 발표대로 갯뽕 붕괴가 이번

사고의 최초 원인이라면 이는 고정 불량, 콘크리트 하중 작용, 강풍의 영향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콘크리트 양생 불량이라는 부실시공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콘크리트가 겨울철 제대로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층을 쌓아 올린다는 거꾸집이 무너지고, 그 충격으로 건물에 순차적으로 붕괴했다는 것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2주가량 양생을 거쳐야 한다”며 “닷새마다 1개 층씩 올렸다는 것은 결국 양생이 불량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2일 오전 소방관계자들이 구조결과 드론을 이용,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또 “사고 직후 찍힌 현장 사진을 보면, 구조물이 무너진 자리에 철근이 가시처럼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또한 철근과 콘크리트가 제대로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

서 추가로 공사가 진행한 정황을 보여 주는 것으로 부실시공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경찰, 화정아파트 현장소장 입건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이 현장소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강력범죄수사대)는 12일 화정아파트 신축 아파트 구조물 붕괴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현장소장 A씨(49)를 입건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부 구조물이 붕괴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작업자 6명이 실종된 상태다.

광주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수색이 최우선 과제라 수사는 가능한 부분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실종자가 있지만, 부상자가 발생할 것을 토대로 현장소장을 우선 입건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구성

국토교통부는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국토부·발주청·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다.

건설사고조사위는 총내각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약 2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각 위원은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2022 Vol.74 01

커비스토리
김상목 김대중컨설팅센터사장
“MICE 인프라 대폭 강화
미래 신사업 발굴 역할”

지역특집
1004섬 공원화 사업

한국의 명장
한국의 매사냥

“MICE 인프라 대폭 강화 · 미래 신사업 발굴 역할” 커비스토리

SI·그린 등 호남권 핵심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력 2025년 제2전시장 개관 사업권 대표 전시장 우뚝내부 직원과 소통... 민·관·학·연 핵심 전략적 마케팅지역인에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특별 초대석] 김원익 의원
사람 사는 세상 만들 ‘목포의 젊은 정치인’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병원 유치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신년기획] 학생 선택적 자율학습 확대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디지털·민주교육 확대교과교육과정 확대 2025년 입학·교육회복 중점 추진

[주목 이 사람] 최범재 시의원
“난임치료 지름길은 체계적 치료 계획”
난임치료, 건강 보험 급여로 편입돼야 여성 나이 35세 이전 임신계획 추천

[이달의 도서] 한강 작 특별하지 않는다
부커상 수상 이후 5년, 한강 문학이 도달한 곳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란다.”

[스포츠 & SPORTS]
2022년은 스포츠의 해
베이징동계올림픽 · 향저우아시안게임 · 카타르월드컵

수천년 이어져온 수렵놀이

매사냥

[한국의 명장] 매사냥 수천년 이어져온 수렵놀이 ‘매사냥’
단순 포획 아닌 인건과 매가 함께하는 합작품유네스코 등재 됐지만, 지방 무형문화재 2명 그저

안수기의 건강백세

지역특집 1004섬 공원화 사업

사계절 꽃피는 힐링섬 ‘신안군’으로 떠나볼까

이색카페 양약당20대부터 90대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수제 양갱
‘할매일’ 취향 저격·SNS 소문만으로 전국구 맛집
정직·신뢰·친절·맛·인테리어 다섯 마리 토끼 다 잡은 비결